

국민 80% “5·18 악의적 왜곡 처벌 필요”

5·18재단 설문…특별법 개정 최우선 과제 꼽아

80.8% “진상규명 시급”…76% “민주화에 기여”

국민 10명 중 8명이 5·18 민주화운동 현안 과제 중 왜곡·편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 정부가 5·18 현안에 대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는 철저한 5·18 진상규명이라고 답했다.

22일 5·18 기념재단이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만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사업 참여자 1008명 등 총 200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4월 13일~25일)를 실시한 결과, 5·18 이미지와 가치를 훼손하는 행

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명시한 ‘5·18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꼽은 의견은 78.4%를 차지했다.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7.4%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 3.09%~3.10% 수준이다.

5·18을 왜곡하는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5·18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비방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응답자 77.1%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여론조사 당시 61.

2%보다 15.9%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률은 6.6%였다.

‘5·18 진상규명을 차기 정부과제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80.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7.4%였다.

이를 반영하듯 5·18 진상규명이 잘 이뤄졌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률은 22.0%였다. 이는 지난해 여론조사 당시 26.9%보다 4.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5·18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흡한 만큼 차기 정부는 이를 선행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18 기여도 항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질문에 동의한 사람

들은 75.9%, ‘한국의 인권신장에 기여했다’에 동의한 사람들은 67.9%였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기여했다’에 대한 동의는 41.6%에 머물렀다.

5·18 이미지 부문에서는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이었다’ 항목에 77.1%, ‘북한과 관련 없다’에 77.3%, ‘불순 세력이 주도한 폭력사태와 관련없다’에 74.9%가 동의했다.

5·18재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기념사업의 적절성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며 “조사 결과는 향후 5·18재단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왜곡에 대한 대응 방안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연명 치료 받지 않겠다’ 서약

심폐소생·인공호흡 등 거부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환자 중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나온 합법적 존엄사 사례다.

2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1명이 최근 병세가 악화하면서 자연사했다.

이 환자는 평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본인 스스로 가족과 의료진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들은 해당 환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연명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뜻한다.

복지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에는 강원대병원·경강보훈공단 일산병원·고려대 구로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세브란스병원·영남대의료원·울산대병원·제주대병원·충남대병원(가나다순) 등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 환자들의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각당 복지재단·대한웰다잉협회·세브란스병원·충남대병원 등 신청기관을 방문해야만 작성할 수 있다.

/연합뉴스



수능 고사장 꼼꼼 확인 2018학년도 대학수능능력 시험일을 하루 앞둔 22일 광주시 서구 광주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교육청 전학생 수업료 이중부담 개선

월 단위 수업료→일 단위로…국립교교·같은 재단은 징수 안해

광주에서 학기 중 전학하는 학생들의 수업료 이중부담이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2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학생이 전학할 경우 월 단위로 산정하던 수업료 징수와 반환 방법을 일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전학하면 옮기기 전 학교와 옮긴 이후 학교에 수업료를 이중 납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전학을 가는 날짜에 따라 기존 학교에 납부한 수업료를 일 단위로 산정해 반환받아 전학 가는 학교에 납부할 수 있다.

국립 교교와 같은 재단 산하 학교 등 수업료가 같은 학교에 전학을 갈 때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징수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타 시·도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이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달라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대전은 일할 계산, 부산 등 나머지 시·도는 월할 계산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분기별 수업료는 일반공·사립이 33만7200원이고,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101만1600원이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조례개정은 학생들이 전학할 때에 이중 징수로 말미암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5
해질 17:23

달돋이 10:51
달질 21:16

수능 한파

대체로 구름 많고 비나 눈 오는 곳 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 많음	1/9	보성	구름 많음	-2/9
목포	구름 많음	4/9	순천	구름 많음	1/9
여수	구름 많음	3/10	영광	비 또는 눈	1/8
나주	구름 많음	0/10	진도	구름 많음	4/9
완도	구름 많음	3/10	전주	구름 많음	-1/7
구례	가끔흐리고비	-1/7	군산	구름 많음	-2/8
강진	구름 많음	1/10	남원	구름 많음	-2/7
해남	구름 많음	2/10	흑산도	구름 많음	6/9
장성	구름 많음	-1/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0~2.5	서~북서 1.0~2.5
남부	면바다 북서~북 2.0~4.0	서~북서 2.0~4.0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	면바다(동)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2.0~3.0	북서~북 1.5~2.5

◇생활지수

	낮음
	산불위험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7:41	04:26
	22:24	17:07
	05:00	11:40
여수	17:52	23:39

◇주간 날씨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1/11	0/11	5/12	-1/9	0/11	4/12	2/11

세월호 선체서 뿔조각 발견 뒤늦게 공개

5일 지나 보고…문대통령 “안일한 대응 책임 묻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세월호에서 사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5일이 지나고 나서야 이를 공개해 은폐 의혹이 이는 것과 관련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염원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오후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와 관련해 사고문을 발표하고 은폐를 지시한 간부를 해임

을 시키고 은폐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세월호 객실에서 빼낸 물건들을 세척하던 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가 발견됐다. 그러나 유골 수습을 보고받은 현장수습본부 김현태 부분부장은 이 사실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수습된 뿔조각을 닦새가 지난 22일 오후에서야 뒤늦게 공개했다. 다만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지난 18일 목포시항을 떠났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가 미수습자 가족을 의식해 발견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목포시 “유전자 변형 목화 인체 무해”

목포시는 고하도 목화(면화)밭에서 ‘유전자 변형’ 목화가 확인된 것과 관련, “인체에 무해하고 관상용으로만 재배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포시는 유전자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LMO)가 검출된 목화에 대한 현장 격리와 수거를 완료했

으며 농촌진흥청 매뉴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관상용은 물론 식품용으로 가능한 목화 종자를 구매해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목화습을 활용한 점구류, 의류, 패션 소품 등 개발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시공 사례

전국학교 옥상 2500곳 설치확정·관공서 설치

광주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서울 노원구청 / 운암동·소룡호텔 / 주월동·성관여린이집, 주월동·노스페이스건물 / 문성동·한석물산업건물 / 내방동·내방교회 / 중흥동·진미식당옥상 / 생촌동·원도식육옥상, 임미자전통김치, 0당구장건물, 힐스테이트목성 / 화정동·노다지건물 / 목포·한가죽식품, 순천·화이트옥상 / 월곡동·온누리마트 /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외 300곳

Hanwha Q CELLS

세계판매 1위 / 25년 출력보증

해가온에너지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